

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	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	보도	2016.7.21(목) 석간부터	배포	2016.7.20(수)	
책 임 자	금융위 글로벌금융과장 탁 윤 성(02-2100-2880) 금융위 전자금융과장 김 동 환(02-2100-2970)	담 당 자	윤 영 주 사무관 (02-2100-2882) 서 병 윤 사무관 (02-2100-2972)		

제 목 : 임종룡 금융위원장, 제3차 한·영 금융협력포럼 및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를 위해 영국 런던으로 출국

I. 한-영 금융협력 포럼

1. 개최배경 및 의의

- '13.11월 박근혜 대통령 訪英시 "한·영 금융협력 강화"를 위한 정례 협의체 구축"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,
-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영국 Andrew Bailey FCA(금융행위감독청)청장을 대표로 런던에서 제3차 한·영 금융협력포럼을 개최할 예정

< 한·영 금융협력포럼 개최 실적 및 계획 >

일시·장소	주요 참석자	주요 의제
제 1 차 (‘14.4월, 런던)	(韓) 신제윤 前위원장 (英) Fiona Woolf 로드메이어(City of London), Andrew Bailey PRA(건전성감독청)청장	제3국 공동진출, 위안화 허브, 금융소비자보호 등
제 2 차 (‘15.5월, 서울)	(韓) 임종룡 위원장 (英) Andrew Bailey PRA청장	핀테크 육성, AIB설립에 따른 협력방안 등
제 3 차 (‘16.7월, 런던)	(韓) 임종룡 위원장 (英) Andrew Bailey FCA(금융행위감독청)청장 * Jeffrey Mountevens 로드메이어는 한·영 포럼 성공적 개최 당부를 위해 금융위 방문(7.19)	거시건전성 확보방안, 위안화 허브, 핀테크 활성화 방안 등

2. 한·영 포럼 주요내용

- (정부 간 대화) 한국 금융위·기재부·금감원 및 영국 재무부·PRA (건전성감독청)·FCA(금융행위감독청)등이 참여하여
 - 거시건전성 정책*, 핀테크 육성, 위안화 국제화 활용방안 등 양 정부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
 - * 가계부채·기업부채·외화부채 등 거시경제 시스템 리스크 관리정책(LTV, DTI, 기업구조조정,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등)에 대해 논의
- (민간 자유토론) 국내 대형투자기관*과 영국 자산운용사 등이 참석하는 Asset management세미나, 양국 금융회사·핀테크 업체 등이 참여하는 Fintech세션 등이 개최될 예정
 - * 국민연금공단, 공무원연금공단, 사학연금공단, 한국투자공사, 삼성생명, 우정사업본부, 한국은행 등 참석
 - 양국 대체투자 현황 및 향후 전략, 우수 핀테크 기술소개 등을 통해 양국 간 실제 투자계약 확대에 이어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
- (감독책임 분담약정 체결) 금융위·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영국 지점 진출 지원*을 위해 PRA와 감독책임분담약정을 체결할 예정
 - * 국민은행은 운영비용 절감, 기업금융확대(지점 전환시 본점 자본금 활용가능) 등을 위해 런던 현지법인 지점전환 추진 중

<감독책임 분담약정 체결 추진배경>

- '08년 금융위기 시 영국 내 외국은행 지점들은 대출을 급격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본점으로 이전하는 등 영국경제에 부정적 영향
- 이에 따라 영국은 국내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 현지법인과 달리 본국(home country)감독을 받는 지점의 신설 인가에 소극적 입장 견지
- 그러나 위안화 금융서비스 제공확대 필요성 등 국제 금융중심지로서 런던의 역할 제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방향을 변경
 - * '13.10월 영국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 시 런던의 위안화 금융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해 그간 중국 정부가 요구해온 지점 설치를 허용
 - PRA는 금융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외국은행 지점인가를 허용하는 기준을 마련('14.9월, 외은지점에 대한 감독강화방안)
- 비유럽계 국가들의 은행지점 인가 선결요건
 - ① 양국 금융감독 수준에 대한 동등성 평가('16.2월 한국은 평가 완료)
 - ② 본국(Home Country) 금융 감독당국과의 감독책임 분담약정 체결

- 금번 감독책임 분담약정 체결을 통해 향후 국민은행 등 **국내 은행들의 영국 영업확대 및 운용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**

* 국내은행 영국 진출현황('16.7월 현재) : 현지법인 2(국민·수출입), 지점 5(우리·KEB하나·신한·산업·기업)

II. 핀테크 데모데이 in London

- 「핀테크 지원센터(센터장 : 정유신)」는 **국내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7.22일 영국 런던 LEVEL 39*에서 '핀테크 Demo day in London**'를 개최**

* 런던의 금융중심지 Canary Wharf에 위치한 유럽 최대의 핀테크 육성기관으로 자금조달·경영자문 등 지원, 現 200개 이상의 스타트업 입주 중

※ 주최 : 핀테크 지원센터,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/ 후원 : 금융위, 英 FCA

- 이는 **한·영 금융협력포럼과 연계하여 영국 현지의 금융회사 및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한 핀테크 기업들을 소개**하기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가 개최한 행사로서,
- **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금융회사·핀테크 기업·전문 투자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**

- '핀테크 Demo day in London' 행사를 계기로

- 금융위원회 - 英 FCA간 핀테크 분야 협력 MOU가 체결될 예정
- 데모데이 행사에서는
 - ① 국내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, 영국 현지 서비스 런칭, 수출계약 및 양국 핀테크 기업간 MOU 체결,
 - ② 국내 핀테크 기업의 기술 시연 및 투자유치 설명과 함께
 - ③ 국내 핀테크 기업과 영국 금융회사투자자간 1:1 상담 등이 진행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